

브리핑

남원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강화 'SW/ICT 특강 세미나' 참여자 모집

남원시가 'SW미래채움사업' 지역특화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술을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SW/ICT 특강 세미나' 개최에 대한 신청자를 도내 및 지리산권 시민을 대상으로 4월 20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의 프롬프트 활용법을 중심으로 한 실전 특강으로, 지역사회 내 인공지능 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초부터 고급 수준까지 단계별로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없는 시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미나는 4월 26일부터 2일간 SW미래채움 전북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강의와 실습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AI 실무 활용 능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만 16세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리산권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임실소방서 방문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이 16일 소방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임실소방서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 본부장은 이날 김상곤 서장을 비롯한 과장과 현장 소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소방시설확충과 소방안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 현장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으며,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지역 재난 대응체계의 운영 현황과 불철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오숙 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소통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전북소방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순이대덕식품 윤중호 대표 순창군에 성금 1천만원 기탁

오순이대덕식품 윤중호(사진) 대표가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세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故 오순이 여사의 유지에 따른 것으로, 윤 대표는 "지난 3월 29일 별세한 아내는 생전에 '기회가 되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자주 이야기했다"면서 "고인의 뜻을 따라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아내가 생전에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서 기쁘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성금은 관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콜, 2025년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남원경찰서가 16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의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해 치안·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체이다.

이날 김우석 남원경찰서장,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박영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현 소방서장 등 당면직 위원 5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0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과 제95회 춘향제 시민안전대책,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고 안전한 남원시 확립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우석 서장은 "지역치안협의회를 기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관·경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인들의 축제' 임실N페스타 5월 3일 열린다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와 만나는 두 번째 축제이자 1500만 반려인들을 위해 마련한 '2025 임실N페스타'가 가정의 달 5월에 화려한 막을 올린다.

16일 군에 따르면 반려동물 문화 축제인 '제40회 의견문화제'와 함께 하는 2025 임실N페스타가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오수 의견 전설화가 있는 오수의견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0번째를 맞는 의견문화제와 함께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모든 것에 초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다채롭게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국 반려동물 패션쇼를 비롯한 반려동물 토크쇼와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전국 반려동물학과 대학생과 함께하는 이·미용 체험 행사가 열린다.

또한, 반려동물 의료한방센터운영은 물론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인 '임실에서 우리함께 꽃길걷기'와 애견 힐링캠프 등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운영된다.

순창군 옹기체험관, 체험형 관광 명소로 인기

순창군 민간위탁시설인 옹기체험관이 전통문화 체험과 관광을 결합한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군 1호 명장이자 대한민국 향토명인협회 전북지회장을 맡고 있는 권운주 관장이 운영하는 옹기 체험관은 도자기의 전통적 제작 방식과 예술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간 약 6,000여 명이 방문할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관광객들은 타래쌓기, 옹기만들기, 옹기돌레 체험, 세라믹 핸드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기 제작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과 학생 단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체험 중심 관광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발맞춰 옹기체험관은 한국관광공사 및 코레일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순창 관광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예약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권운주 명장은 "옹기체험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전통문화의 깊이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전통의 아름다움과 그 제작 과정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옹기체험관은 연중 운영되며, 체험 예약 및 문의는 전화(063-652-4365)를 통해 가능하다.

순창=신경호기자

5일까지 오수의견공원에서 '의견문화제'와 동시 개최 반려동물 관련 이색 행사, 공연·체험·먹거리 풍성

특히, 3일 개막 축하공연에는 트롯 대세인 손태진과 이찬원이, 4일 열리는 최강석 가요제에는 김희재 등 트롯 빅3가 출연해 화려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반려동물 패션쇼에는 개그콘서트 출신 KBS 개그맨들이 출연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개성 넘치는 런웨이를 선보이고, 패션쇼 팀 심사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토크쇼에는 개통령 강형욱 대표와 이응중 교수,

설재현 수의사가 초청돼 반려동물 가족들의 반려견 관련 다양한 궁금증 등을 해소해 줄 방침이다.

여기에 축제 기간 중 하루 2회 진행되는 특수견 시범훈련과 반려인과 반려견과 교감할 수 있는 상시 어질리티 존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 반려인과 반려견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 먹거리로는 청정 임실에서 자란 50개월 미만의 암소 한우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향토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돼 제공된다.

심민 군수는 "임실N페스타는 바담직한 반려동물 보호 문화 정착을

도는 물론 반려동물과 반려 가족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열린다"면서 "이번 축제를 토대로 임실이 1500만 반려인의 성지와 세계적인 반려동물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오수펫추모공원 운영을 비롯한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인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반려동물 다목적 공원, 세계 명경 테마랜드 조성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임실을 반려동물의 성지,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임실=문홍철기자

남원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 '꿈도담터 SW경진대회' 대상·우수상

남원시가족센터 운영인 공동육아나눔터5호점(운봉)이 지난 2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사피엔스4.0 이 주관한 '신한 꿈도담터 SW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한 꿈도담터 SW경진대회'는 꿈도담터(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과학적 사고역량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체험형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심화교육 후 기관별 현장 SW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신한 꿈도담터 SW경진대회'에는 전국 32개 기관에서 120개팀 250명의 학생이 참가해 10개팀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코딩 사고력 부문에서 8대

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김영찬(운봉초 3학년)·정우석(산내초 5학년)팀이 우수상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상을 박한솔(운봉초 4학년)·박한주(운봉초 2학년)팀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남원시가족센터는 16일 공동육아나눔터5호점(운봉)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상장 및 상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남원시는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의 기능을 보완하고 보호자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5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가족센터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밴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남원=천희철기자

남원시, 산불 피해 지자체에 온정의 손길 전해

전직원 참여...1900여만 원 전달

남원시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9일간 모금활동을 벌여 총 1,900여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활동은 남원시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인 결실로 이통장연합회 및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들 또한 동참해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예약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권운주 명장은 "옹기체험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전통문화의 깊이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전통의 아름다움과 그 제작 과정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산불 피해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재해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피해 복구

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오고 있으며 평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예방활동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남원=천희철기자

남원시, 산불 피해 지자체에 온정의 손길 전해



남원시가 산불 피해 지자체를 돕기 위한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들의 주거 안정, 생계 지원, 생필품 구입 등 긴급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산불 피해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재해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피해 복구

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오고 있으며 평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예방활동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남원=천희철기자

임실군-원광대, K-치유힐링·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맞손

임실군과 원광대학교 K-치유힐링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K-치유힐링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15일 원광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이진관 임실 부군수와 김홍성 K-치유힐링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K-치유 힐링 관련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프로그램 공동 개발 △K-치유힐링 관련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공동 연구를 통한 치유힐링 산업 활

성화와 상호 홍보 추진 △임실군 지역 활성화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등이다.

특히, 원광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5월에 열리는 2025년 임실N페스타에 HUSS 비교과 프로그램인 '맹맹이와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 서강대, 단국대, 대전대, 상명대) 대학생 40여명이 반려동물 패션쇼 및 토크쇼, 오수 국민여가캠핑장 힐링캠프 등 1박 2일 동안 참여한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임실군에 머무르며 반려동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치유 힐링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진관 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의 성공적인 운영과 치유 힐링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임실군 반려동물 산업과 원광대의 K-치유힐링 분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문홍철기자

순창군, '귀래정 유아숲 체험원' 개장

오는 11월까지 산림교육 운영

순창군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신체 발달을 돕는 '귀래정 유아숲체험원'을 개장했다.

군은 순창읍 행복누리센터 뒤편 귀래정 일원에 5,000㎡ 규모의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체험원에는 학습장과 데크, 야외 테이블, 벤치, 화장실 등 기본 기반시설은 물론, 그물놀이, 불꽃쌓기, 터널놀이, 트리하우스, 질라인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아이들의 높은 전문 유아숲 지도사의 지도 아래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울 수 있도록 계절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월별 테마 프로그램으로는 △4월 '봄이 왔어요!' △5월 '습지에 사는 친구들' △6월 '꿀벌의 여행' △7월 '새 이야기' △8월 '아깁들이 주는 나무' △9월 '매미야 놀자!' △10월 '흙이 고마워!' △11월 '가을관중' 등이 계획되어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귀래정 유아숲체험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숲 체험활동은 관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회씩 사전 예약제 운영된다.

순창=신경호기자

임실시, 군부대 사칭 사기범죄 예방 민-관-군 합동 캠페인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는 16일 임실시에서 35사단과 자율방범대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사칭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임실=문홍철기자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종사자 인권 집합교육

남원시가 16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3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종사자 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고령 사회에 발맞추어 노인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가가 노인인권

의 이해, 노인학대 신고 절차와 대처방안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및 학대의 사례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과 종사자분들이 행복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천희철기자